

# 2010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동향분석실\*

## I. 개관: 경기회복과 일자리 현황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악화되었던 고용사정은 2010년 상반기 성장률의 회복과 함께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던 취업자증가율이 2010년 경기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플러스로 전환되어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그림 1 참조). 특히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2010년 상반기 취업자는 2009년 상반기 대비 283천 명이 증가하였다(그림 2 참조). 그러나 이는 2009년 상반기에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던 기저효과의 영향이 포함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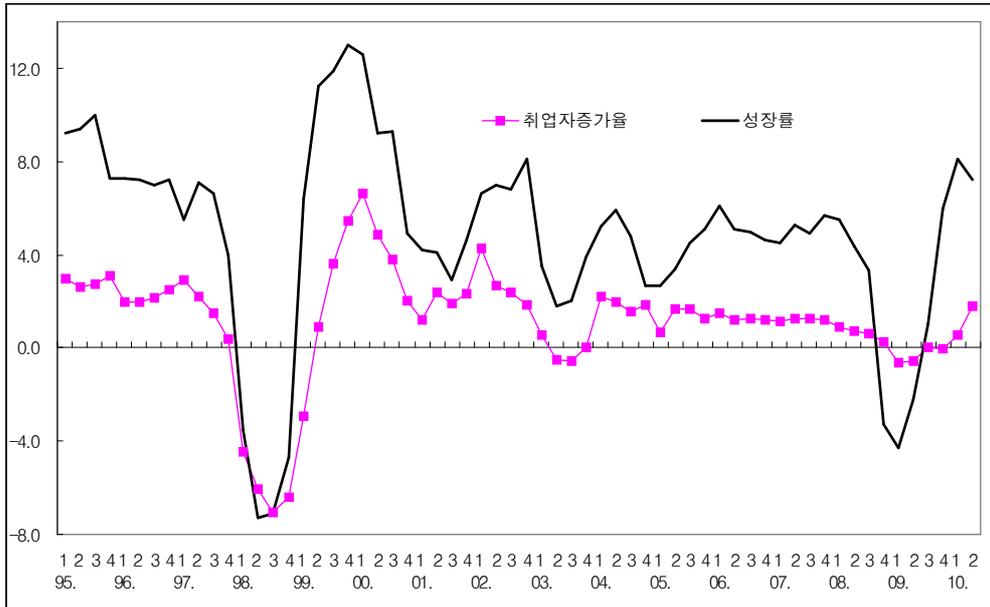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상반기 대비 0.1%p 상승한 60.8%를 기록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은 0.1%p 감소한 반면 여성은 0.3%p 증가하여 여성주도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나타냈다. 이는 2009년 일자리 감소가 여성에 집중되었다가 2010년 상반기에 여성 고용이 회복된 영향이다. 반면 고령화 효과를 제거한 1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상반기 대비 0.5%p 증가한 65.8%로 나타났으며, 남성(0.2%p)과 여성(0.6%p) 모두 증가하였다.

고용률은 2009년 상반기 대비 0.1%p 감소한 58.3%를 기록하였는데 남성(-0.1%p)은 감소한 반면, 여성(0.0%p)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고령화 효과를 제거한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0.4%p 상승한 63.1%를 기록하였고, 남성(0.2%p)과 여성(0.4%p) 모두 증가하였다.

\*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그림 1] 성장률, 취업자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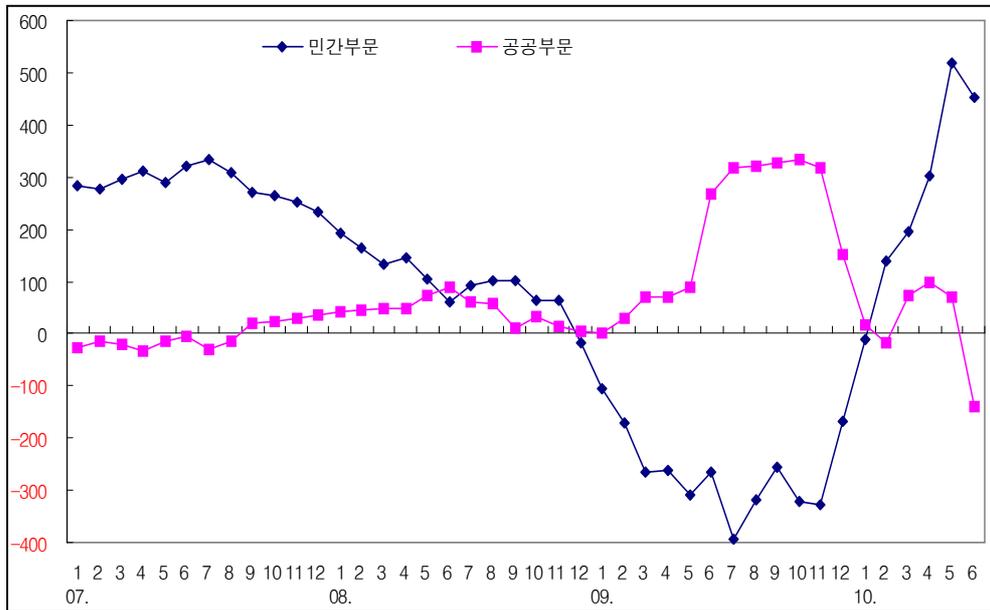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2] 부문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06	2007	2008	2009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38,762 (1.2)	39,170 (1.1)	39,598 (1.1)	40,092 (1.2)	39,483 (1.1)	39,964 (1.2)	40,476 (1.3)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23,978 (1.0)	24,216 (1.0)	24,347 (0.5)	24,394 (0.2)	24,245 (0.6)	24,246 (0.0)	24,602 (1.5)	
	취업자 (증가율) (증감수)	23,151 (1.3) (295)	23,433 (1.2) (282)	23,577 (0.6) (145)	23,506 (-0.3) (-72)	23,461 (0.8) (191)	23,321 (-0.6) (-140)	23,603 (1.2) (283)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여성)	61.9 (74.1) (50.3)	61.8 (74.0) (50.2)	61.5 (73.5) (50.0)	60.8 (73.1) (49.2)	61.4 (73.5) (49.9)	60.7 (73.0) (48.9)	60.8 (72.9) (49.2)	
	고용률 (남성) (여성)	59.7 (71.3) (48.8)	59.8 (71.3) (48.9)	59.5 (70.9) (48.7)	58.6 (70.1) (47.7)	59.4 (70.8) (48.6)	58.4 (69.8) (47.4)	58.3 (69.7) (47.4)	
	실업자 실업률 (남성) (여성)	827 3.5 (3.8) (2.9)	783 3.2 (3.7) (2.6)	769 3.2 (3.6) (2.6)	889 3.6 (4.1) (3.0)	784 3.2 (3.6) (2.7)	926 3.8 (4.3) (3.2)	999 4.1 (4.3) (3.7)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14,784 (1.6)	14,954 (1.2)	15,251 (2.0)	15,698 (2.9)	15,239 (1.8)	15,718 (3.1)	15,874 (1.0)	
	15 ~ 64세	경제활동참가율 (남성) (여성)	66.2 (77.8) (54.8)	66.2 (77.6) (54.8)	66.0 (77.3) (54.7)	65.4 (76.9) (53.9)	66.0 (77.2) (54.7)	65.3 (76.8) (53.8)	65.8 (77.0) (54.4)
		고용률 (남성) (여성)	63.8 (74.7) (53.1)	63.9 (74.6) (53.2)	63.8 (74.4) (53.2)	62.9 (73.6) (52.2)	63.7 (74.4) (53.1)	62.7 (73.4) (52.0)	63.1 (73.6) (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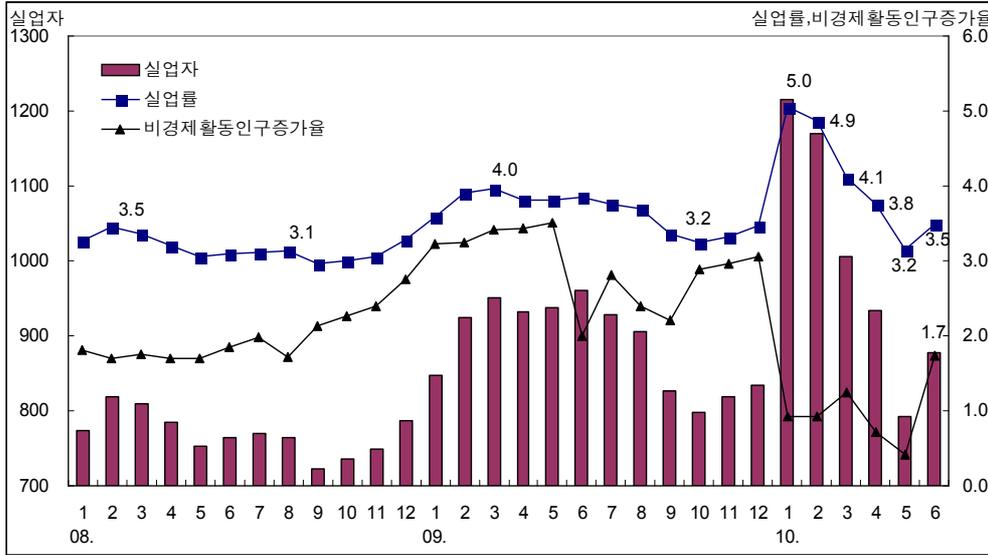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부분적으로 고용회복의 신호가 보이는 가운데 2010년 상반기 실업자는 100만 명에 가까운 999천 명을 기록했으며, 실업률도 0.3%p 증가한 4.1%를 나타냈다. 2009년 하반기에 실시되었던 경기침체로 악화된 고용시장의 개선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행정인턴 사업 등이 종료됨에 따라 2010년 1월 이후 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까닭이다. 그러나 월별로 살펴보면, 실업자 증가폭과 실업률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2009년 상반기 3.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비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상반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1.0%에 그치며 증가추세가 다소 약화되었다. 이는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시장이 개선되면서 취업과 실업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가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II. 부문별 노동시장 평가

### 1. 20대 청년층과 30대 남성 고용사정 지속적으로 악화

2010년 상반기에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연령별 취업자 동향을 살펴보면, 2010년 상반기 중 295천 명이 50대에서 증가해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으며, 60세 이상(35천 명), 15~19세(25천 명), 40대(14천 명) 순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20대는 2009년 상반기 대비 59천 명이 감소하였고, 30대는 27천 명이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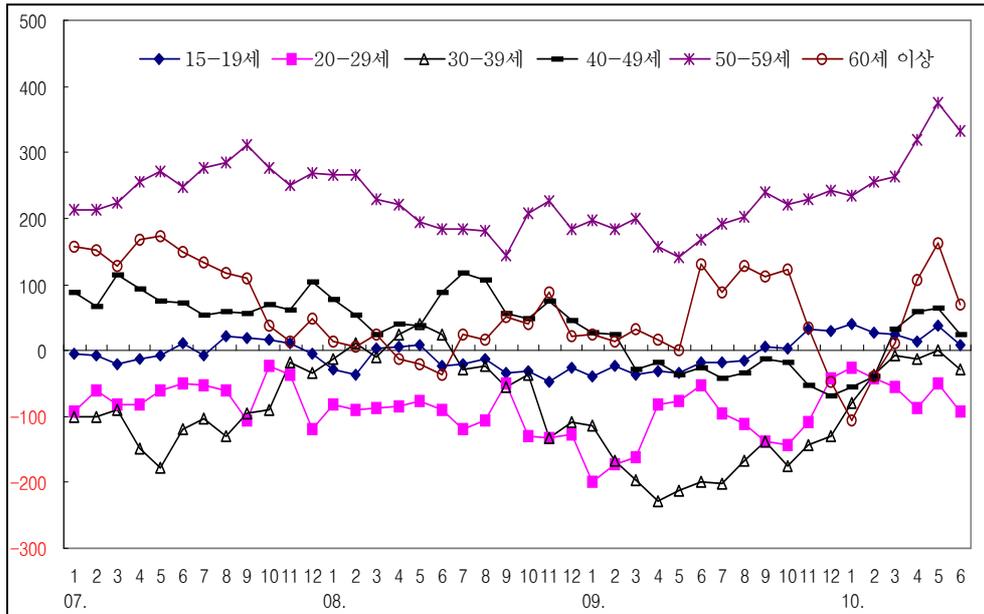
경기회복국면에도 불구하고 20대 청년층의 고용감소는 2009년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추세에 있어 청년층의 고용위기가 심화됨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4 참조). 한편 2009년 상반기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30대 여성 취업자는 2010년 상반기 소폭 증가(11천 명)했지만 남성은 감소추세를 그대로 이어가 38천 명이 감소하여 핵심 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30대 남성에서 고용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표 2 참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20대 청년취업자는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

났다(표 3 참조).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을 제외한 모든 지위에서 감소했다. 2009년 상반기대비 상용직은 22천 명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여성(40천 명) 주도의 효과이며 오히려 남성 20대는 19천 명이 감소했다. 한편 경기회복 국면에서 청년고용은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중심으로 소폭 회복(7천 명)한 반면, 100인 이상(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 규모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연령별 취업자 증감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2> 성별·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남성					여성				
	2008	2009	2008 (1~6월)	2009 (1~6월)	2010 (1~6월)	2008	2009	2008 (1~6월)	2009 (1~6월)	2010 (1~6월)
전체	96	31	125	1	152	48	-103	66	-141	130
15~19세	-15	-11	-9	-16	0	-6	-1	-2	-15	24
20~29세	-52	-42	-51	-51	-27	-46	-73	-35	-73	-33
30~39세	-3	-67	1	-50	-38	-22	-106	11	-136	11
40~49세	49	-13	56	-8	14	15	-11	-3	-2	-1
50~59세	105	118	121	96	166	102	80	106	78	130
60세 이상	12	46	7	29	37	5	9	-11	8	-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노동시장의 핵심연령계층인 30대 남성 취업자의 고용사정은 2010년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고졸 이하의 저학력에서 취업자 감소가 심각해 2009년 상반기 대비 117천 명이 감소했다. 30대 남성 저학력자는 2008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임과 동시에 감소폭도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을 중심으로 임금근로자가 개선되는 2010년 상반기의 특징과 같이 30대 남성에서도 상용직은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증감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업체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18천 명, 100~299인 규모에서 13천 명이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33천 명이 감소했다. 2009년 상반기 경기침체에 30대 남성 취업자가 50천 명이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2010년 상반기 회복국면에서 대기업의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20대 청년 취업자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그림 5 참조)를 보이고 있고, 30대 남성은 감소했다. 이는 경제해야 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일자리창출은 그 파급력을 생각할 때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 20대 청년층 및 30대 남성 취업자 부문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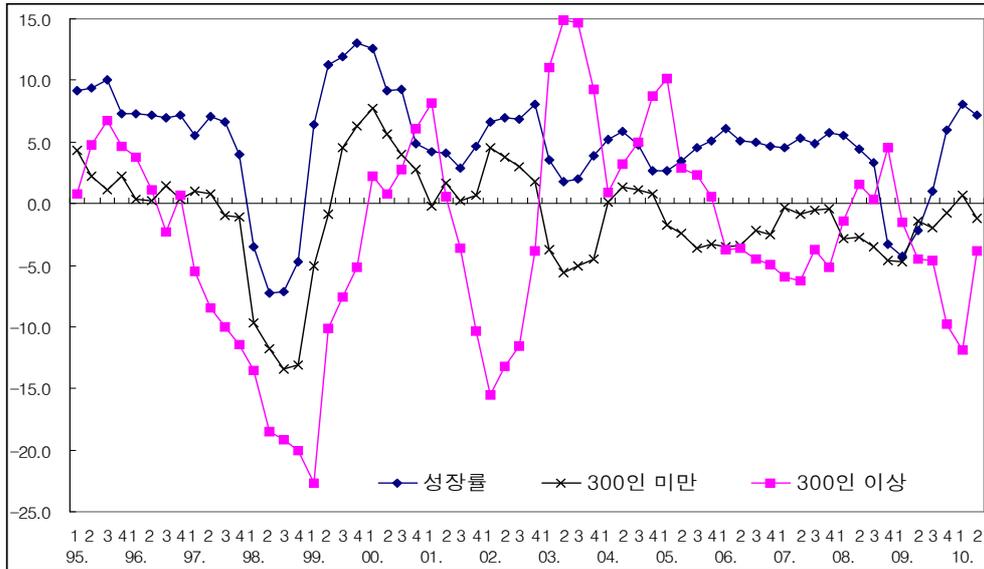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대 청년층					30대 남성					
	2008	2009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2008	2009	2008 상반기	2009 상반기	2010 상반기	
취업자	-98	-115	-85	-124	-59	-3	-67	1	-50	-38	
학종자	-105	-133	-79	-140	-56	13	-70	9	-46	-59	
학력별	고졸 이하	-87	-78	-94	-94	-19	-85	-122	-89	-98	-117
	전문대졸	-51	-25	-13	-36	-40	65	48	39	71	49
	대졸 이상	40	-12	21	6	0	17	7	52	-23	30
종사상 지위별	상용	-20	-67	8	-69	22	56	112	46	116	54
	임시	-78	-8	-115	-18	-31	-19	-53	-12	-54	-16
	일용	-10	-17	15	-23	-33	2	-39	-1	-25	-48
	고용주	9	-3	14	-6	-2	-28	-25	-31	-34	19
	자영자	9	-21	2	-8	-7	-23	-60	-10	-52	-43
	무급가족	-8	2	-9	0	-7	8	-1	8	-1	-3
규모별	1~9인	-51	-56	-26	-69	4	33	-42	35	-40	18
	10~99인	-56	-23	-48	-31	3	13	-7	0	16	-9
	100~299인	-6	8	-17	3	-16	-7	15	-5	10	13
	300인 이상	5	-22	0	-13	-33	1	54	3	50	-33

주 : 규모는 임금근로자에 한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5] 기업규모별 20대 취업자 증가율 추이 및 성장률 추이

(단위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2. 여성 취업자 증가는 50대가 주도

2010년 상반기 여성 취업자 증가(130천 명)는 50대(130천 명)가 주도했으며, 20대(-33천 명)에서는 감소했다. 여성 50대 취업자의 증가추세는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도 상승국면에 접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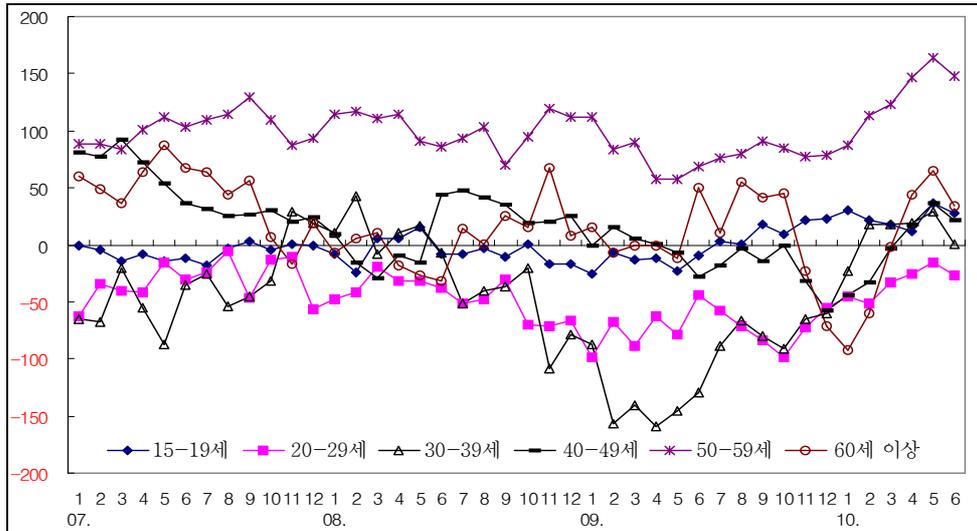
2010년 상반기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153천 명이 감소해 2009년 상반기(-148천 명)의 감소폭보다 더 큰 규모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남성 비임금근로자는 61천 명이 감소하는 데 그쳐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2009년 상반기 경기침체의 타격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여성 비임금근로자에 집중되어 취업자가 감소했던 경향이 2010년 회복국면에서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다만 2009년 상반기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118천 명)에 집중된 반면, 2010년 상반기에는 무급가족종사자에 집중(-127천 명)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4 참조).

한편 2010년 상반기 여성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349천 명)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임시근로자(22천 명)도 소폭 증가했다. 특히 여성 상용근로자 증가추세는 지속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7 참조). 여성 상용근로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40세 이상에 집중되어있어 중고령자 중심으로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다.

여성 취업자 증가를 주도한 50대의 경우 상용임시근로자(148천 명)를 중심으로 크게

[그림 6] 연령별 여성 취업자 증가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4> 성별·고용형태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남 성					여 성				
	2008	2009	2008 (1~6월)	2009 (1~6월)	2010 (1~6월)	2008	2009	2008 (1~6월)	2009 (1~6월)	2010 (1~6월)
전 체	96	31	125	1	152	48	-103	66	-141	130
비임금	-28	-129	-35	-116	-61	-64	-190	-74	-148	-153
고용주	-35	-5	-29	-33	26	-1	-5	9	-7	-16
자영자	1	-131	-11	-84	-98	-45	-119	-41	-118	-10
무급가족	6	7	5	0	11	-18	-66	-41	-24	-127
임금	124	160	161	117	214	113	87	140	7	283
상용	249	286	273	261	359	138	97	169	55	349
임시	-88	-34	-71	-76	-19	-5	55	-26	5	22
일용	-37	-92	-42	-68	-126	-21	-66	-2	-53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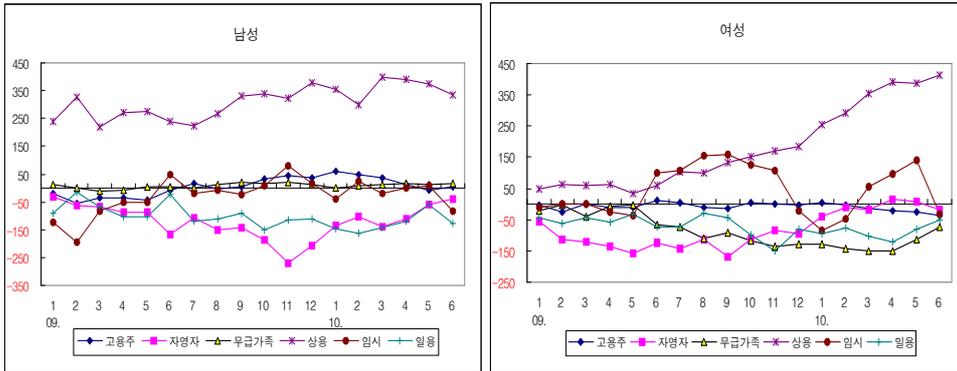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증가했다. 40대는 상용근로자가 2009년 상반기 대비 113천 명이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폭이 커 여성 40대 취업자는 감소했다(부표 2 참조).

여성 고용증가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2천 명)이 크게 증가했으며, 교육서비스업(35천 명), 제조업(31천 명)에서 2009년 상반기 대비 증가했음을 보이고 있다(표 5 참조). 특히 제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벗어나 2010년 상반기 플러스 증가로 전환했으며 50대의 영향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성별·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5> 산업별 여성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08 (1~6월)	2009 (1~6월)	2010 (1~6월)
전 체	120	48	-102	66	-140	130
농림어업	-26	-29	-45	-41	-23	-81
광업	-1	1	-1	1	-1	0
제조업	-17	-37	-110	-8	-128	31
50~59세	-5	32	4	38	2	3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	-2	-2	-1	-4	-4
하수폐기물처리 등	-1	-2	-1	-2	0	-2
건설업	5	3	-12	13	-21	8
도소매업	-44	-10	-35	-15	-35	22
운수업	-2	-2	-1	-2	-6	18
숙박음식업	1	-20	-103	-20	-81	-64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24	-9	11	-10	9	6
금융보험업	15	-5	-32	-4	-28	3
부동산 및 임대업	6	-2	7	-4	10	-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8	29	0	21	15	3
사업시설관리 등	54	12	1	9	19	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	8	109	8	45	26
교육서비스업	21	29	42	33	18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40	92	140	79	137	132
15~19세	0	1	-1	1	-2	2
20~29세	-7	25	19	15	29	13
30~39세	14	31	32	32	33	24
40~49세	18	29	45	25	42	39
50~59세	10	6	32	5	23	36
60세 이상	6	0	14	0	12	19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1	18	-10	13	2	-9
협회 및 기타개인서비스	55	-14	-56	-4	-59	5
가구내고용활동	22	-12	-5	-1	-10	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3. 제조업 부문의 고용증가세 확대

2010년 상반기 일자리 증가세는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의 고용증가세가 현저하다. 2010년 상반기 민간부문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266천 개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에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던 것과 상반된 현상이다. 2010년 6월 현재 민간부문 일자리는 전년동월대비 454천 개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141천 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상반기 일자리는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의 증가세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상반기 제조업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9.2%를 기록함으로써 2009년 상반기 -10.3%에 비해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제조업의 성장은 고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표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상반기 제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117천 개이다. 최근까지 제조업 부문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그러나 2010년 들어서면서 제조업의 고용은 1월에 전년동월대비 29천 명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5월에는 190천 명, 6월에는 181천 명으로 늘어났다.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이 증가함과 더불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고용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2010년 상반기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51천 개 증가하였으며, 6월에는 전년동월대비 80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관련 산업의 일자리 증가세가 꾸준하다는 점이다. 2010년 상반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137천 개가 증가하였으며, 6월에만 전년동월대비 175천 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상반기 경기회복에 따른 일자리 증가세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주도하고 있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전년동기대비 31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신규 일자리는 오히려 35천 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수산업의 일자리 감소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상반기 도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과 건설업의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6.5%, 0.4% 증가했으나 이들 산업에서의 일자리는 각각 65천 개(숙박 및 음식점업 59천 개, 도소매업 6천 개), 9천 개가 사라졌다.

<표 6> 취업자의 산업별·규모별 고용증감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연간				반기						월별					
	2008		2009		2008 (1~6월)		2009 (1~6월)		2010 (1~6월)		2008 6월		2009 6월		2010 6월	
전 체	23,577	145	23,506	-72	23,461	191	23,321	-140	23,603	283	23,963	147	23,967	4	24,280	314
공공	840	43	1,032	191	843	57	931	88	948	16	887	88	1,155	268	1,014	-141
민간	22,737	101	22,474	-263	22,618	134	22,300	-229	22,656	266	23,076	60	22,812	-264	23,266	454
농림어업	1,686	-37	1,648	-38	1,613	-59	1,608	-5	1,484	-124	1,883	-57	1,858	-25	1,820	-39
광업	23	6	23	-0	23	7	22	-1	21	-0	21	5	22	1	22	-0
제조업	3,963	-52	3,836	-126	4,003	-26	3,846	-157	3,963	117	3,993	-46	3,836	-157	4,017	18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90	4	96	5	93	6	98	5	79	-19	91	4	99	8	78	-21
하수·폐기물·처리 등	66	5	72	6	64	6	73	8	62	-10	65	3	72	8	62	-10
건설업	1,812	-37	1,720	-91	1,817	-34	1,739	-78	1,730	-9	1,864	-69	1,776	-88	1,843	67
도소매업	3,631	-41	3,600	-32	3,647	-31	3,602	-45	3,596	-6	3,598	-51	3,597	-1	3,541	-55
운수업	1,248	1	1,247	-1	1,254	14	1,239	-15	1,283	44	1,259	1	1,277	19	1,273	-4
숙박 및 음식점업	2,044	-5	1,936	-107	2,039	-7	1,959	-81	1,900	-59	2,076	16	1,954	-122	1,880	-74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627	-7	652	25	636	10	643	7	664	21	633	0	667	34	657	-10
금융·보험업	821	15	766	-55	823	32	764	-59	807	43	821	29	736	-84	814	77
부동산업 및 임대업	489	-17	500	12	483	-24	500	18	518	18	494	-21	495	2	532	3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6	55	844	87	730	21	824	95	864	40	755	49	842	88	881	39
사업·시설관리 등	974	20	944	-29	955	36	933	-22	984	51	993	21	954	-39	1,033	80
교육서비스업	1,784	44	1,831	48	1,771	45	1,803	32	1,833	30	1,821	65	1,867	45	1,833	-3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42	103	998	156	810	94	956	146	1,033	137	835	87	1,001	166	1,176	17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업	419	48	390	-28	395	30	407	12	374	-32	418	45	393	-25	402	9
협회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297	6	1,211	-86	1,290	13	1,212	-78	1,240	28	1,288	-10	1,195	-93	1,232	37
가구·내·고용활동 등	150	-11	147	-3	156	-1	149	-7	149	0	153	-13	157	4	156	-1
국제 및 외국기관	16	1	12	-4	16	1	13	-3	11	-2	16	1	14	-3	14	-0
300인 미만	21,711	117	21,522	-189	21,586	156	21,358	-237	21,676	318	22,030	117	21,916	-174	22,320	404
1~4인	9,976	-79	9,536	-440	9,916	-87	9,555	-360	9,454	-101	10,239	-84	9,736	-503	9,724	-12
5~9인	3,219	30	3,199	-20	3,210	35	3,165	-45	3,266	101	3,246	-21	3,258	12	3,395	137
10~29인	3,722	73	3,842	120	3,684	103	3,787	103	3,894	107	3,747	76	3,894	147	4,019	126
30~99인	3,199	55	3,312	114	3,201	88	3,242	41	3,433	191	3,235	106	3,361	127	3,524	162
100~299인	1,585	38	1,633	37	1,585	18	1,608	23	1,628	20	1,624	40	1,667	43	1,668	-9
300인 이상	1,866	28	1,983	117	1,866	35	1,963	97	1,928	-35	1,873	30	2,051	178	1,961	-9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7>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연간				반기						월별					
	2008		2009		2008 (1~6월)		2009 (1~6월)		2010 (1~6월)		2008. 6월		2009. 6월		2010. 6월	
전 체	23,577	145	23,506	-72	23,461	191	23,321	-140	23,603	283	23,963	147	23,967	4	24,280	314
임금근로자	16,206	236	16,454	247	16,152	300	16,276	124	16,773	497	16,385	261	16,736	351	17,193	457
상용직	9,007	386	9,390	383	8,910	441	9,225	315	9,934	708	9,039	423	9,340	301	10,089	749
임시직	5,079	-93	5,101	22	5,103	-97	5,032	-71	5,035	3	5,132	-85	5,281	149	5,165	-116
일용직	2,121	-57	1,963	-158	2,139	-44	2,018	-121	1,804	-214	2,214	-76	2,115	-99	1,938	-177
비임금근로자	7,371	-92	7,052	-319	7,309	-109	7,045	-264	6,831	-214	7,578	-114	7,231	-347	7,087	-144
고용주	1,527	-35	1,517	-10	1,538	-20	1,499	-39	1,509	10	1,544	-34	1,547	2	1,517	-30
자영자	4,443	-44	4,194	-249	4,406	-52	4,205	-202	4,096	-108	4,548	-67	4,259	-289	4,203	-56
무급가족종사자	1,401	-13	1,341	-60	1,365	-36	1,342	-23	1,226	-116	1,485	-13	1,425	-60	1,367	-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4. 상용직 증가세 지속

2010년 상반기 일자리 증가세는 임금근로자가 주도하고 있다. 특히 상용직의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졌던 시기이다. 상용직 증가세는 2000년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2010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7.7%나 증가하였다.

<표 8>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비중 추이

(단위: %)

	연간		반기			월별								
	2008	2009	2008 (1~6월)	2009 (1~6월)	2010 (1~6월)	2008. 6월	2009. 6월	2010. 1월	2010. 2월	2010. 3월	2010. 4월	2010. 5월	2010. 6월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임금근로자	68.7	70.0	68.8	69.8	71.1	68.4	69.8	71.3	71.2	71.1	71.0	71.0	70.8	
상용직	38.2	39.9	38.0	39.6	42.1	37.7	39.0	42.5	42.8	42.5	41.8	41.5	41.6	
임시직	21.5	21.7	21.8	21.6	21.3	21.4	22.0	21.3	21.2	21.3	21.5	21.5	21.3	
일용직	9.0	8.4	9.1	8.7	7.6	9.2	8.8	7.5	7.2	7.3	7.7	8.0	8.0	
비임금근로자	31.3	30.0	31.2	30.2	28.9	31.6	30.2	28.7	28.8	28.9	29.0	29.0	29.2	
고용주	6.5	6.5	6.6	6.4	6.4	6.4	6.5	6.7	6.6	6.4	6.3	6.1	6.2	
자영자	18.8	17.8	18.8	18.0	17.4	19.0	17.8	17.3	17.4	17.4	17.4	17.4	17.3	
무급가족종사자	5.9	5.7	5.8	5.8	5.2	6.2	5.9	4.8	4.8	5.1	5.3	5.5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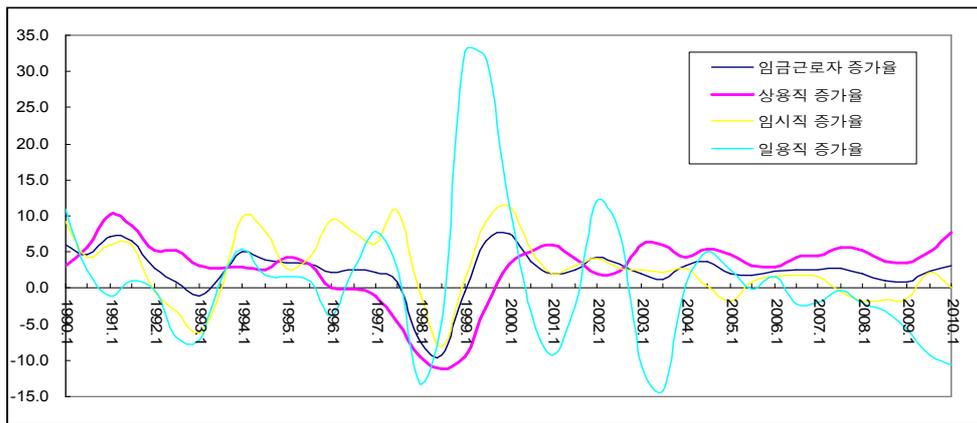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2010년 상반기 상용직 근로자는 9,934천 명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708천 명 증가하였다. 전체 취업자의 42.1%를 차지한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조사가 시작된 1989년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특히 2010년 4월에는 전년동월대비 785천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용직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노동시장 내에서 상용직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고용관리 방식의 변화가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8>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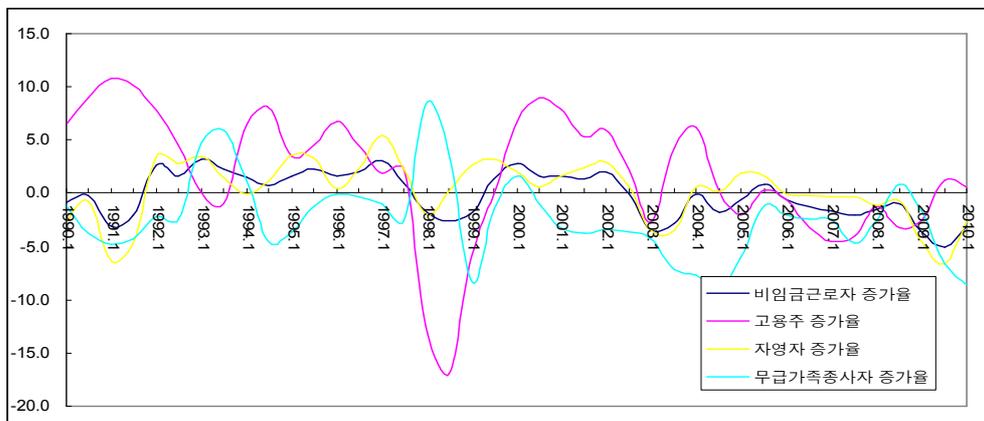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9]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1) 황덕순(2010), 「최근의 상용직 근로자 증가 실태분석」, 『노동리뷰』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최근 상용직 일자리 증가세는 제조업(112천 개)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13천 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5천 개), 도소매업(77천 개), 숙박 및 음식점업(37천 개) 등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에서 주도하고 있다. 2010년 상반기 동안 공공부문에서 창출된 상용직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3천 명에 불과한 반면, 민간부문에서 창출된 상용직 일자리는 무려 705천 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상용직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2010년 상반기 전체 취업자대비 상용직 비중이 63.2%를 차지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의 상용직 일자리는 대부분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창출된 것이며,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상용직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는 생산현장에서 고용계약의 행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결과로 보인다.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상용직 일자리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전적으로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창출된 2010년 상반기 상용직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723천 개이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14천 개의 상용직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상용직 일자리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고용이 위축되었던 2009년 상반기에도 80천 개의 상용직 일자리가 증가한 것과 대비가 된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상용직 일자리 감소는 모두 남성의 일자리로 나타났으며, 20~30대 연령층과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상반기는 여성과 50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상용직 일자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0년 상반기의 상용직 일자리 중 여성(359천 개)이 차지하는 비중은 33.6%에 이르렀으며, 2010년 6월에는 3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0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상용직 일자리가 단순노무직(52천 개)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92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일자리를 직종(사무직종 대 생산직종)과 연령(30~40대 대 50~60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핵심연령층인 30~40대의 상용직 일자리는 사무직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5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생산직종(전년동기대비 215천 개)의 증가폭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0년 상반기의 일자리는 50대 연령층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2010년 상반기의 상용직 일자리는 50대 이상의 생산직종에서 증가가 현저하다는 것이다.

〈표 9〉 상용직 근로자의 산업별·규모별 고용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연간				반기						월별					
	2008		2009		2008 (1~6월)		2009 (1~6월)		2010 (1~6월)		2008. 6월		2009. 6월		2010. 6월	
전 체	9,007	386	9,390	383	8,910	441	9,225	316	9,934	708	9,039	423	9,340	301	10,089	749
공공	665	39	678	13	676	58	674	-2	677	3	679	61	673	-7	670	-3
민간	8,342	348	8,712	370	8,234	384	8,551	317	9,256	705	8,360	361	8,667	307	9,419	752
농림어업	20	4	17	-3	19	6	16	-3	19	2	23	6	16	-6	19	3
광업	18	6	16	-2	19	7	15	-3	16	1	17	6	15	-2	17	2
제조업	2,385	9	2,395	10	2,365	2	2,393	28	2,506	112	2,391	30	2,401	10	2,557	156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84	7	90	7	85	10	93	8	74	-19	84	8	92	8	74	-19
하수폐기물처리 등	39	-0	47	8	38	-2	46	9	45	-1	37	-1	47	10	46	-1
건설업	508	55	520	11	495	69	522	27	537	15	506	57	509	2	543	35
도소매업	782	34	805	24	779	64	785	6	862	77	760	17	776	16	855	79
운수업	466	18	486	19	463	8	474	11	521	46	483	31	501	18	503	2
숙박 및 음식점업	127	2	143	16	128	8	130	2	167	37	138	6	153	15	167	15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477	-8	509	32	483	10	493	10	523	30	484	-3	512	28	514	2
금융보험업	476	30	465	-11	469	30	469	1	494	24	476	33	448	-28	504	5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7	-4	150	23	122	-13	143	21	181	38	127	-9	149	22	191	4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8	59	628	90	511	33	604	93	646	42	538	47	630	92	664	34
사업시설관리 등	454	18	503	49	445	26	474	29	587	113	462	27	502	40	631	129
교육서비스업	881	32	916	35	879	49	901	22	950	49	890	39	912	21	954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75	66	642	67	559	64	620	61	715	95	568	54	637	69	748	11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업	100	13	93	-7	95	3	95	0	94	-1	94	4	88	-6	102	14
협회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67	5	274	7	264	7	266	1	309	44	264	7	264	0	317	52
가구내고용활동 등	0	0	1	0	0	0	0	-0	1	0	-	-	0	0	-	-0
국제 및 외국기관	16	2	12	-4	16	2	12	-4	10	-1	16	2	13	-3	13	0
300인 미만	7,304	366	7,601	298	7,206	408	7,441	235	8,164	723	7,337	402	7,518	181	8,308	791
1~4인	545	34	581	37	542	43	555	13	669	114	558	55	560	2	680	120
5~9인	1,036	82	1,088	52	1,005	76	1,058	53	1,176	118	1,025	63	1,077	52	1,208	131
10~29인	2,056	123	2,153	97	2,012	144	2,112	100	2,320	209	2,064	153	2,112	48	2,354	243
30~99인	2,333	70	2,402	69	2,332	101	2,359	28	2,587	228	2,347	89	2,379	32	2,641	262
100~299인	1,334	56	1,377	43	1,316	45	1,357	41	1,411	54	1,344	42	1,391	47	1,426	36
300인 이상	1,703	20	1,788	85	1,704	33	1,784	80	1,770	-14	1,703	21	1,822	120	1,781	-41
남성	6,053	249	6,338	286	5,980	273	6,241	261	6,601	359	6,087	292	6,328	241	6,662	334
여성	2,954	138	3,051	97	2,929	168	2,984	55	3,333	349	2,953	131	3,012	59	3,427	415
30세 미만	2,141	-23	2,069	-71	2,152	4	2,076	-76	2,103	28	2,163	-41	2,084	-78	2,128	44
30대	3,131	144	3,243	111	3,114	174	3,211	97	3,348	137	3,155	183	3,226	71	3,375	149
40대	2,326	138	2,496	170	2,266	123	2,444	178	2,686	242	2,309	140	2,489	180	2,736	247
50대	1,171	125	1,311	140	1,144	139	1,244	100	1,454	211	1,171	140	1,276	105	1,488	212
60세 이상	237	2	270	33	234	0	250	16	342	92	242	1	265	23	362	98
관리자	321	-10	338	17	319	-2	327	8	366	38	306	-27	331	25	369	3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706	209	2,770	64	2,685	268	2,740	55	2,870	130	2,715	221	2,756	41	2,894	139
사무 종사자	2,709	132	2,790	80	2,670	127	2,771	101	2,895	124	2,738	175	2,776	38	2,949	173
서비스 종사자	387	40	456	68	384	46	430	47	520	90	401	46	463	62	532	70
판매 종사자	384	-8	413	29	381	-8	390	9	454	64	384	-17	403	19	452	49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4	1	13	-0	13	0	13	-0	14	1	13	2	12	-1	12	-0
기능원 등	704	61	727	23	695	59	732	37	738	6	695	39	720	25	770	50
장치, 기계조작 등	1,191	-39	1,247	56	1,175	-58	1,230	55	1,334	103	1,181	-40	1,259	78	1,346	87
단순노무 종사자	590	1	636	46	588	9	592	4	744	152	606	23	620	14	765	14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10〉 제조업 취업자 및 상용직 근로자의 고용증감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연간				반기						월별						
	2008		2009		2008 (1~6월)		2009 (1~6월)		2010 (1~6월)		2008. 6월		2009. 6월		2010. 6월		
〈취업자〉																	
전 체	3,963	-52	3,836	-126	4,003	-26	3,846	-157	3,963	117	3,993	-46	3,836	-157	4,017	181	
총 사 상 지 위	임금근로자	3,373	-49	3,277	-96	3,396	-41	3,294	-102	3,366	72	3,381	-66	3,299	-82	3,431	133
	상용직	2,385	9	2,395	10	2,365	2	2,393	28	2,506	112	2,391	30	2,401	10	2,557	156
	임시직	733	-49	660	-73	771	-40	670	-101	663	-7	755	-67	676	-79	667	-9
	일용직	255	-9	222	-33	260	-4	231	-29	197	-34	235	-28	222	-13	208	-14
	비임금근로자	589	-3	559	-30	607	15	552	-55	597	45	612	20	537	-75	585	48
	고용주	230	-13	221	-9	243	-3	214	-29	233	20	233	-13	214	-18	233	18
	자영자	240	12	222	-18	242	20	223	-19	223	-0	256	26	214	-41	213	-1
	무급가족종사자	119	-2	116	-3	122	-1	115	-7	140	25	123	7	108	-15	139	31
〈상용직〉																	
전 체	2,385	9	2,395	10	2,365	2	2,393	28	2,506	113	2,391	30	2,401	10	2,557	156	
규 모	300인 미만	1,736	55	1,795	59	1,705	41	1,772	67	1,933	162	1,747	78	1,785	38	1,969	184
	1~4인	51	3	53	2	50	2	53	2	57	5	56	10	55	-1	61	6
	5~9인	148	6	167	20	144	2	161	17	182	21	148	1	170	21	185	16
	10~29인	473	37	485	13	458	40	471	13	529	58	472	47	472	1	541	69
	30~99인	636	4	629	-8	635	12	641	6	674	33	638	22	626	-13	682	56
	100~299인	429	5	460	32	417	-15	446	29	491	45	433	-2	463	30	501	38
	300인 이상	649	-46	601	-48	660	-39	622	-39	572	-49	645	-49	616	-29	587	-29
	직 종	관리자	70	-18	66	-5	76	-12	64	-11	66	2	71	-19	63	-8	6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90	1	356	-34	390	8	360	-30	369	9	388	-1	362	-26	381	20
사무 종사자		579	10	597	18	575	6	596	21	632	36	598	47	595	-3	644	49
서비스 종사자		8	2	8	-0	6	-0	9	2	6	-2	7	1	8	1	6	-2
판매 종사자		45	-8	37	-8	48	-6	35	-13	43	8	49	-8	37	-12	46	9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능원 등		315	57	303	-12	308	52	312	4	289	-23	318	58	297	-22	302	5
장치, 기계조작 등		797	-43	835	38	785	-51	834	49	883	49	778	-55	853	75	894	41
단순노무 종사자	181	8	193	13	178	6	184	6	217	33	182	7	187	5	219	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5. 일용직 감소세 지속

일용직 일자리의 감소세는 2006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 2010년 상반기 일용직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10.6% 감소한 1,804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7.6%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저조한 수치이다. 일용직 근로자의 절대적 고용규모 또한 IMF 경제위기 이후 처음으로 2,000천 명 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일용직 일자리의 감소세는 건설업(61천 개), 숙박 및 음식점업(44천 개), 제조업(34천 개), 도매 및 소매업(15천 개)이 주도하고 있다. 일용직 일자리는 40세 이상 중고령자를 중심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단순노무직 종사자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서비스 종사자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상반기 서비스 종사자의 일용직 일자리는 전년동기 대비 63천 개 감소하였다. 이들 서비스 종사자의 사라진 일자리 대부분은 숙박 및 음식점업(59천 개)에 종사하는 30~40대 여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상반기의 일용직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내 종사상지위별 비중을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산업내 취업자대비 일용직의 비중이 감소함으로써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고용주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자영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일용직 비중이 감소함과 더불어 비임금근로자의 비중 또한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일용직 일자리는 노동시장에 어떤 상태로 머무르고 있는가? 2010년 상반기 일용직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214천 개 사라졌으며, 그 감소폭은 상당하다. <표 12>를 통해 일용직 일자리의 노동이동을 보면 2010년 상반기 일용직 감소는 일용직으로의 입직 규모가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용직 근로자가 입직하였다가 지금 현재 취업상태이거나 실업·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는 규모는 2010년 상반기 동안 2,030천 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어떤 고용형태로든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비중은 2008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상반기에는 전체 일용직 이직자의 2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용직 근로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일용직 근로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을 이루고 있다는 점, 일용직 근로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11〉 일용직 근로자의 산업별·규모별 고용증감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연간				반기						월별					
	2008		2009		2008 (1~6월)		2009 (1~6월)		2010 (1~6월)		2008. 6월		2009. 6월		2010. 6월	
전 체	2,121	-57	1,963	-158	2,139	-44	2,018	-121	1,804	-214	2,214	-76	2,115	-99	1,938	-177
공공	41	1	32	-9	36	-6	41	4	10	-30	55	15	47	-8	13	-33
민간	2,079	-58	1,930	-149	2,103	-38	1,978	-125	1,794	-184	2,159	-91	2,068	-90	1,925	-144
농림어업	113	-5	116	3	113	-7	117	4	112	-5	147	-15	166	19	165	-1
광업	1	-0	1	-0	1	-0	1	-0	0	-1	1	-1	1	-1	1	0
제조업	255	-9	222	-33	260	-4	231	-29	197	-34	235	-28	222	-13	208	-14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	-0	0	-0	1	-0	0	-1	1	1	0	-1	-	-0	1	1
하수폐기물처리 등	1	0	1	0	1	-0	2	0	1	-0	1	-2	2	1	1	-0
건설업	678	-43	638	-40	684	-57	653	-30	592	-61	730	-51	706	-25	668	-38
도소매업	249	2	238	-10	256	10	246	-11	231	-15	241	-1	236	-5	219	-17
운수업	56	3	45	-11	58	6	50	-9	36	-13	62	17	47	-15	35	-12
숙박 및 음식점업	342	9	324	-18	346	29	335	-11	291	-44	357	21	334	-23	288	-46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16	3	13	-3	19	5	12	-6	15	2	16	7	14	-2	12	-2
금융보험업	6	1	4	-2	5	-0	4	-1	5	1	6	4	4	-2	4	-0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5	14	6	7	-9	13	6	8	-4	10	-4	16	7	9	-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1	-4	10	-1	14	-5	12	-2	11	-1	10	-8	11	0	12	1
사업시설관리 등	119	-6	76	-43	116	-5	74	-42	82	8	124	-24	72	-51	86	14
교육서비스업	23	2	21	-2	22	3	21	-1	16	-6	24	2	26	1	17	-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	-1	22	8	14	-2	23	9	21	-2	16	1	21	5	22	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업	51	4	44	-7	48	3	44	-4	41	-3	47	2	46	-1	47	1
협회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76	7	80	3	74	4	79	5	77	-2	72	3	78	7	71	-7
가구내고용활동 등	59	-15	61	2	63	-8	61	-2	57	-4	59	-12	65	6	59	-7
국제 및 외국기관	0	0	-	-0	-	-	-	-	-	-	-	-	-	-	-	-
300인 미만	2,099	-56	1,943	-156	2,118	-43	2,000	-118	1,790	-210	2,189	-82	2,094	-95	1,919	-175
1~4인	950	-42	877	-73	964	-21	893	-71	866	-27	981	-54	907	-74	909	2
5~9인	591	12	553	-38	593	20	575	-19	491	-84	620	5	599	-21	544	-55
10~29인	384	-22	345	-40	382	-34	358	-23	301	-57	398	-36	386	-12	331	-54
30~99인	130	-3	124	-5	133	-6	130	-3	99	-31	135	1	151	17	97	-54
100~299인	45	-1	44	-0	46	-3	44	-2	32	-12	55	1	51	-4	38	-13
300인 이상	21	-1	20	-2	21	-1	19	-3	14	-4	25	6	21	-4	19	-2
남성	1,141	-37	1,049	-92	1,152	-42	1,083	-68	957	-126	1,188	-47	1,163	-25	1,037	-126
여성	979	-21	913	-66	987	-2	935	-53	847	-88	1,026	-29	952	-74	901	-51
30세 미만	367	-21	335	-31	390	13	344	-46	321	-23	357	2	355	-2	305	-50
30대	348	-23	287	-61	361	-22	304	-57	243	-61	371	-23	309	-62	244	-65
40대	609	-18	576	-32	610	-30	591	-19	502	-88	637	-28	608	-29	532	-77
50대	491	18	473	-17	480	19	481	2	462	-19	515	11	508	-7	522	14
60세 이상	307	-14	291	-16	298	-24	298	-0	275	-23	333	-38	335	2	335	-0
관리자	0	0	-	-0	-	-	-	-	0	0	-	-	-	-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0	4	20	-10	30	6	24	-6	14	-10	30	2	24	-6	14	-9
사무 종사자	46	3	37	-9	48	6	36	-12	39	4	55	19	40	-14	39	-1
서비스 종사자	329	19	304	-26	328	35	326	-3	262	-63	347	46	309	-38	268	-41
판매 종사자	140	-2	138	-2	152	12	138	-13	138	-0	142	6	146	3	126	-2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21	-18	21	1	25	-15	21	-3	21	-0	20	-38	25	5	30	5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510	-15	473	-38	510	-28	479	-31	430	-49	552	8	495	-57	459	-3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3	-6	80	-14	100	-2	84	-16	70	-14	89	-17	83	-7	67	-16
단순노무 종사자	950	-42	890	-60	946	-57	910	-36	829	-80	979	-102	994	15	936	-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12〉 최근 일용직 일자리의 노동이동

(단위: 천 명, %)

	순입직	총입직자수	총이직자수	규모			비중		
				실업	비경황	취업	실업	비경황	취업
2004년 상반기	10	2,355	2,345	702	1,273	370	29.9	54.3	15.8
2005년 상반기	53	1,958	1,905	725	1,265	-85	38.0	66.4	-4.4
2006년 상반기	33	2,228	2,195	643	1,215	337	29.3	55.4	15.4
2007년 상반기	-46	2,280	2,326	555	1,145	626	23.9	49.2	26.9
2008년 상반기	-44	2,348	2,392	560	1,110	722	23.4	46.4	30.2
2009년 상반기	-121	2,164	2,284	641	1,066	578	28.0	46.7	25.3
2010년 상반기	-214	1,816	2,030	314	1,208	508	15.5	59.5	25.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III. 2010년 하반기 전망

#### 1. 하반기 경제는 상반기에 이어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2010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민간부문이 경기상승을 주도하여 상반기 7.4% 성장에 이어 하반기에도 4.5%의 견실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sup>2)</sup> 연간치로 보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수출 및 설비투자가 세계경제 회복세 확대 및 IT업황 호조, 생산설비 교체수요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2009년 연간 0.2% 성장에서 2010년에는 5.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간소비 부문은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대, 순금융자산 증가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설비투자도 전년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건설투자 증가율은 주택매매 위축 영향에 따른 주거용 건물건설 부진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며, 상품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2. 취업계수는 하락추세 지속될 전망

생산성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의 고용흡수력이 감소함에 따라 취업자수를 GDP로 나눈 ‘취업계수’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 거시경제 전망 부분은 한국은행(2010년 7월)의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참고하였는데, 상반기 실적치는 전망치보다 다소 높은 7.6%를 기록하였다.

<표 13> 경제성장 전망

(단위: 전기대비, %)

	2009	2010			2011
	연간	상반기p	하반기p	연간p	연간p
GDP성장률	0.2	7.4	4.5	5.9	4.5
민간소비	0.2	4.9	3.0	3.9	3.8
건설투자	4.4	0.3	1.0	0.7	1.4
설비투자	-9.1	28.3	14.9	20.9	6.9
상품수출	0.0	18.8	15.1	16.8	9.9
상품수입	-7.9	21.7	19.1	20.3	10.8

주: p는 전망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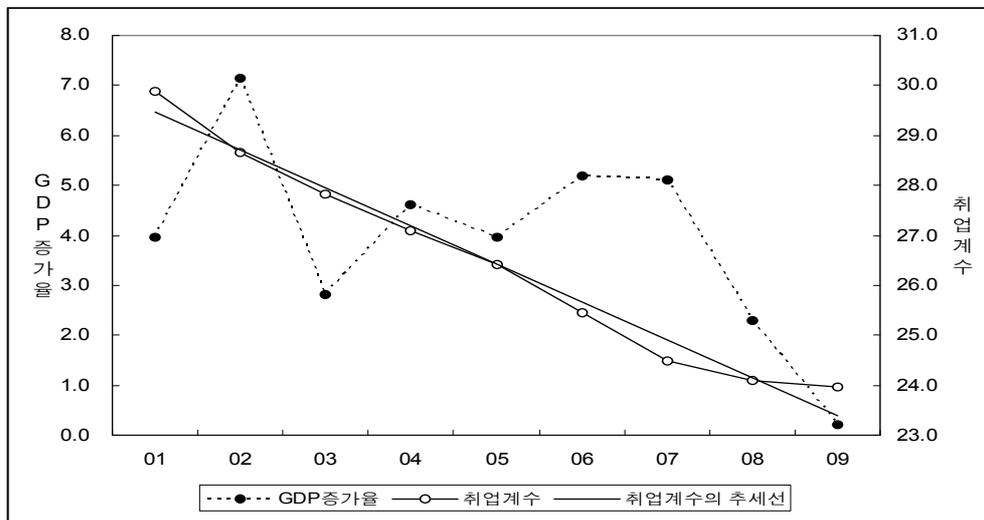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2010. 7),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

[그림 10]은 2001년 이후 GDP증가율과 취업계수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데 장기추세선에서 보듯이 취업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2009년에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확대’, ‘청년인턴십 실시’, ‘희망근로사업’ 등 정부의 직접일자리 창출정책의 영향으로 취업계수가 장기추세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직접일자리 창출정책의 실시가 경제성장의 고용흡수력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2010년 일자리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희망근로사업’ 등 정부의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은 2010년 상반기에 종료될 예정인데 이럴 경우

[그림 10] GDP증가율, 취업계수 추이

(단위: %, 취업계수)



자료: 통계청·한국은행.

취업계수는 다시 추세선을 따라 2009년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성장의 고용 흡수력을 높이는 것을 정책목표로 한다면 2010년 하반기에도 정부의 직접일자리 정책을 통해 취업계수의 급속한 하락을 막는 정책이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2010년 고용은 하반기 321천 명, 연간 30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0년 상반기에 비교적 높게 나타났던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들어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전년인 2009년 하반기보다는 높게 전망되고 있어 2010년 하반기 노동시장 지표도 상반기에 이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노동시장의 회복정도와 질적 측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반기에 정부의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이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것인지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할 것인지를 문제인데, 일단 노동시장으로 나온 인구 중 상당부분은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 취업자수는 단순히 하반기 취업자 전망치에서 기존 희망근로 참여근로자수를 뺀 숫자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최근 노동시장의 특징 중 하나인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가 경기회복에 기인한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고용계약 관행의 변화 등에 기인한 점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상용직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인지를 여부이다.

셋째, 상반기에 증가세를 보였던 다른 산업과는 달리 음식숙박업의 취업자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의 원인을 해당 업종의 구조적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고용통계의 특성상 정확히 포착되지 않는 동포 등 외국인력이 국내인력을 빠른 속도로 대체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종의 착시효과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인가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하반기 노동시장을 전망한 결과를 보면 취업자는 1.4% 증가한 약 321천 명의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경제활동참가율 61.1%, 고용률 58.9%, 실업자수 898천 명, 실업률 3.6%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 2010년 연간 노동시장 전망치는 연간 경제성장률 5.9% 하에서 취업자가 302천 명 증가하여 1.3%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활동참가율 61.0%, 고용률 58.6%, 실업자수 953천 명, 실업률 3.8%로 전망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하반기에도 전반적인 고용사정은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30대 연령계층의 고용사정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내

수산업의 고용지표 또한 개선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청년층이나 임시·일용직, 그리고 내수산업 종사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KLI**

<표 14> 2010년 수정 고용전망

(단위: 천 명, %)

	2009			2010p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p	상반기	하반기p
경제성장률	0.2	-3.2	3.5	5.9	7.4	4.5
생산가능인구	40,092	39,964	40,221	40,610	40,476	40,744
경제활동인구	24,394	24,246	24,543	24,760	24,602	24,910
경제활동참가율	60.8	60.7	61.0	61.0	60.8	61.1
취업자	23,506	23,321	23,691	23,808	23,603	24,012
(증가율)	-0.3	-0.6	-0.01	1.3	1.2	1.4
(증감수)	-72	-141	-3	302	283	321
실업자수	889	926	852	953	999	898
실업률	3.6	3.8	3.5	3.8	4.1	3.6
고용률	58.6	58.4	58.9	58.6	58.3	58.9

주: 1) p는 전망치임.

2) 2010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망치임. 실적치는 이보다 다소 높은 7.6%를 기록하였음.

<부표 1> 최근 일용직 일자리 감소세를 주도하는 산업의 종사상지위별 비중

(단위: %)

		연간		반기			월별		
		2008	2009	2008 (1~6월)	2009 (1~6월)	2010 (1~6월)	2008. 6월	2009. 6월	2010. 6월
제조업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임금근로자	85.1	85.4	84.8	85.6	84.9	84.7	86.0	85.4
	상용직	60.2	62.4	59.1	62.2	63.2	59.9	62.6	63.6
	임시직	18.5	17.2	19.3	17.4	16.7	18.9	17.6	16.6
	일용직	6.4	5.8	6.5	6.0	5.0	5.9	5.8	5.2
	비임금근로자	14.9	14.6	15.2	14.4	15.1	15.3	14.0	14.6
	고용주	5.8	5.8	6.1	5.6	5.9	5.8	5.6	5.8
	자영자	6.1	5.8	6.1	5.8	5.6	6.4	5.6	5.3
	무급가족종사자	3.0	3.0	3.0	3.0	3.5	3.1	2.8	3.5
건설업	전 체	45.7	44.8	45.4	45.2	43.7	46.7	46.3	45.9
	임금근로자	35.9	35.5	35.5	36.0	33.9	36.7	36.9	35.6
	상용직	12.8	13.5	12.4	13.6	13.6	12.7	13.3	13.5
	임시직	5.9	5.3	6.1	5.5	5.4	5.7	5.2	5.5
	일용직	17.1	16.6	17.1	17.0	14.9	18.3	18.4	16.6
	비임금근로자	9.9	9.4	9.9	9.2	9.8	10.0	9.4	10.3
	고용주	4.5	4.2	4.5	4.2	4.1	4.6	4.1	4.4
	자영자	4.7	4.6	4.7	4.4	5.0	4.8	4.6	5.2
	무급가족종사자	0.6	0.6	0.6	0.6	0.7	0.6	0.7	0.7
도소매업	전 체	91.6	93.8	91.1	93.7	90.8	90.1	93.8	88.2
	임금근로자	49.0	50.7	48.9	50.3	50.4	47.5	50.3	48.8
	상용직	19.7	21.0	19.5	20.4	21.8	19.0	20.2	21.3
	임시직	23.0	23.5	23.1	23.5	22.8	22.4	24.0	22.0
	일용직	6.3	6.2	6.4	6.4	5.8	6.0	6.2	5.5
	비임금근로자	42.6	43.1	42.2	43.3	40.4	42.6	43.4	39.4
	고용주	8.8	9.4	8.7	9.2	9.0	8.4	9.4	8.7
	자영자	25.1	24.9	24.8	25.1	23.7	25.2	25.0	23.2
	무급가족종사자	8.8	8.9	8.6	9.0	7.8	9.0	9.0	7.4
숙박및음식점업	전 체	51.6	50.5	50.9	50.9	47.9	52.0	50.9	46.8
	임금근로자	28.9	28.8	28.2	28.8	28.5	29.4	28.9	28.2
	상용직	3.2	3.7	3.2	3.4	4.2	3.5	4.0	4.2
	임시직	17.0	16.6	16.4	16.8	17.0	17.0	16.2	16.9
	일용직	8.6	8.5	8.6	8.7	7.3	8.9	8.7	7.2
	비임금근로자	22.7	21.7	22.7	22.1	19.4	22.6	22.1	18.6
	고용주	7.4	7.4	7.4	7.4	6.9	7.5	7.8	6.6
	자영자	8.7	8.0	8.8	8.1	7.2	8.6	8.0	6.7
	무급가족종사자	6.6	6.3	6.5	6.5	5.4	6.5	6.3	5.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부표 2> 성별·연령별·고용형태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남 성					여 성				
		2008	2009	2008 (1~6월)	2009 (1~6월)	2010 (1~6월)	2008	2009	2008 (1~6월)	2009 (1~6월)	2010 (1~6월)
15~19세	전 체	-15	-11	-9	-16	0	-6	-2	-2	-16	26
	상용	0	-3	1	-5	4	-2	-2	-6	-2	2
	임시	-3	1	-3	1	1	-1	5	1	-1	9
	일용	-7	-11	-3	-14	0	-4	-3	1	-9	10
	고용주	0	0	0	0	0	0	0	0	0	1
	자영자	-2	0	-3	1	-1	1	-1	2	-4	3
	무급가족	-2	1	-2	1	-3	0	0	0	0	1
20~29세	전 체	-52	-42	-51	-51	-26	-45	-73	-35	-73	-33
	상용	25	-39	34	-24	-19	-45	-28	-26	-45	40
	임시	-71	5	-82	-14	3	-7	-13	-33	-4	-34
	일용	-10	-7	3	-10	-21	0	-11	12	-12	-12
	고용주	4	3	7	0	4	4	-7	7	-6	-6
	자영자	2	-9	-8	-2	0	6	-13	10	-6	-7
	무급가족	-4	4	-5	0	7	-4	-2	-5	0	-14
30~39세	전 체	-3	-67	1	-50	-38	-22	-106	11	-137	11
	상용	56	112	46	116	54	88	0	128	-19	83
	임시	-19	-53	-12	-54	-16	-25	-37	-31	-31	-50
	일용	2	-39	-1	-25	-48	-25	-22	-21	-33	-13
	고용주	-28	-25	-31	-34	19	-12	-5	-8	-5	-5
	자영자	-23	-60	-10	-52	-43	-31	-16	-33	-23	16
	무급가족	8	-1	8	-1	-3	-17	-26	-24	-26	-21
40~49세	전 체	50	-12	56	-7	14	14	-11	-3	-2	-1
	상용	89	113	93	111	129	50	58	30	68	113
	임시	6	-27	8	-23	-1	-21	17	-15	-2	2
	일용	-25	-15	-35	-13	-36	7	-18	5	-6	-52
	고용주	-7	-4	-10	-12	-12	-10	8	-13	2	3
	자영자	-10	-81	0	-69	-72	-6	-47	-1	-48	-17
	무급가족	-3	2	0	-1	6	-5	-29	-9	-16	-50
50~59세	전 체	105	118	121	96	166	102	80	106	78	131
	상용	81	82	98	58	119	43	58	41	42	92
	임시	-10	16	0	8	11	41	19	44	8	56
	일용	9	-16	1	-3	-13	10	-1	18	4	-6
	고용주	2	21	6	15	21	13	-2	16	1	-3
	자영자	18	15	14	17	24	-14	9	-23	11	9
	무급가족	4	1	2	1	4	9	-2	10	11	-17
60세 이상	전 체	13	46	7	28	37	5	9	-11	8	-2
	상용	-2	22	0	5	73	4	12	0	11	19
	임시	9	25	18	7	-17	8	65	8	35	39
	일용	-6	-5	-6	-3	-7	-8	-11	-18	3	-16
	고용주	-6	-1	-1	-1	-7	4	0	6	0	-5
	자영자	16	5	-4	20	-5	-2	-50	5	-48	-15
	무급가족	2	0	1	0	-1	-1	-7	-14	7	-2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